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국 아버지 가사 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은기수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7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連家祺

연가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원장 박 태 균 (인)

부위원장 한 정 훈 (인)

위원 은 기 수 (인)

**Pattern of Time Use on Childcare and Housework by
Korean Fathers**

Professor Eun, Ki Soo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July 2017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Lin Ka Ki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Lin Ka Ki

July 2017

Chair Park, Tae Gyun (인)

Vice Chair Han, JeongHun (인)

Examiner Eun, Ki-Soo (인)

목록

1. 서론	4
2. 기존연구 검토	12
2.1. 시간제약이론	13
2.2. 상대적 자원이론	16
2.3. 성 이데올로기 이론	19
2.4. 연구 문제 및 가설	22
3. 데이터와 변수	25
3.1. 데이터	25
3.2. 변수	28
3.2.1. 종속변수	28
3.2.2. 독립변수	31
3.2.3. 통제변수	36
4. 분석결과	42
4.1.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	42
4.1.1. 기술 연구	42
4.1.2.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회귀분석	52
4.2. 한국 남편들의 육아 참여	59
4.2.1. 기술 연구	59
4.2.2. 남편들의 육아 참여에 대한 회귀 분석	68
5. 토론 및 결론	76
6. 참고문헌	82

GRAPH AND TABLE

TABLE 1. COMPOSITION OF CHILDCARE WORK AND HOUSEWORK.....	27
TABLE 2. BASIC INFORMATION OF VARIABLES.....	38
TABLE 3.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DIFFERENT FACTORS	42
GRAPH 1.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PAID WORK TIME.....	44
GRAPH 2.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INCOME DIFFERENCE	46
GRAPH 3.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EDUCATION LEVEL.....	47
GRAPH 4.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WORKPLACE STATUS	49
GRAPH 5.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GENDER IDEOLOGY PAIRING	50
TABLE 4. REGRESSION ON KOREAN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BY DIFFERENT FACTORS.....	52
TABLE 5.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DIFFERENT FACTORS	59
GRAPH 6.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PAID-WORK TIME	61
GRAPH 7.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INCOME DIFFERENCE	63
GRAPH 8.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EDUCATION LEVEL	64
GRAPH 9.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OCCUPATION LEVEL.....	65
GRAPH 10.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SEX-ROLE PAIRING	67
TABLE 6. REGRESSION ON KOREAN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BY DIFFERENT FACTORS.....	68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factors that may affect the housework participation and childcare involvement of Korean fathers.

Using 2014 Time Use Data by Statistics Korea, factors related to three mainstream theories, namely time availability perspective, relative resource perspective and gender ideology perspective were selected.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Korean fathers' domestic involvement were tested through regression test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of all, it is found that time availability factors still remain powerful on affecting Korean fathers on both housework participation and childcare involvement.

Second, it is found that relative resource perspective is relatively weak among Korean fathers. Consistent to previous researches, education

level difference within a couple is irrelevant to fathers' household participation.

Third, it is newly discovered that gender ideology has significant effect on Korean fathers' domestic involvements. Moreover, it is surprising that wives' progressive sex-role attitude has significant but negative effect on fathers' household participation if the fathers are of traditional attitude. Whether this trend will continue and the reasons behind require mor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to discover.

Keywords

Time Use Data, Korean, Childcare, Housework, Father, Time availability, Relative resources, Gender ideology

1. 서론

한국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유급 노동 참여는 한국경제 발전에 따라 지난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Cha & Yoo, 2001). 2016 년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통계로 본 노동 동향”에 의하면, 15 세부터 64 세 사이—한국여성의 취업률이 2011 년 53.1%에서 2015 년 55.7%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자료인 “맞벌이 가구 현황 2013”에 따르면 2013 년 한국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42.9%를 차지했으며, 이는 외벌이 가구의 비율인 42.4%보다 높은 숫자였다. 이러한 통계 결과를 통해서 한국여성의 유급노동참여가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들은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부담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4 년에 발표한 통계 결과를 보면 맞벌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은 비슷하지만 남편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아내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불과 5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하루에 분배할 수 있는 시간이 24 시간으로 동일한 가운데 기존의 가사노동시간이 유지된 상황에서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한국여성들이 겪고 있는 시간적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Cho, 2008). 이처럼 가사노동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을 포함한 총 노동시간의 증가와 각 노동간의 시간분배 문제는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기회비용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삶에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남편들의 가사노동 및 육아 활동은 여성의 복지와 출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아이의 인지 능력이 아버지의 육아 활동 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이의 교류가 많을 수록 아이의

베일리 영아 발달 지수(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가 높은 경향이 있고, 이러한 영향은 영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Pedersen, Rubinstein & Yarrow, 1979; Pedersen, Anderson & Kain, 1980).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자식들의 문제 해결 능력(problem-solving ability)과 세 살 이전의 지능(IQ)을 향상 시킬 수 있다(Easterbrooks & Goldberg, 1984; Yogman, Kindlan & Earls, 1995). 취약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아이들의 계산 능력과 언어 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 (Bing, 1963; Goldstein, 1982; Radin, 1982).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 공부에 대한 아버지의 지원이 많을 수록 아이들의 공부 의욕과 태도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Alfaro, Umana-Taylor & Bamaca, 2006). 아버지의 돌봄은 아이들의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버지의 돌봄을 많이 받은 영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영유아들에 비하여 낯선 환경 속에서도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다(Kotelchuck 1976; Parke & Swain 1975). 이러한 효과는 영유아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될 수 있고(Mischel, Shoda & Peake, 1988) 영유아들의 정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Biller, 1993; Mischel et al., 1988).

마지막으로는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의 돌봄이 자식의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검증했다(Amato, 1987; Forehand & Nousiainen, 1993; Gottfried et al., 1988; Krampe & Fairweather, 1993; Mischel et al., 1988; Parke, 1996; Snarey, 1993; Stolz, Barber, & Olsen, 2005).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높을 수록 아이들이 건전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타인에 대한

인내심과 이해력도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Hooven, Gottman, & Katz, 1995; Lieberman, Doyle, & Markiewicz, 1999; Lindsey, Moffett, Clawson, & Mize, 1994; Macdonald & Parke, 1984; Rutherford & Mussen, 1968; Youngblade and Belsky, 199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아버지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참여가 아내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를 어떻게 확대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 년 한국 통계청 생활 건강 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찾는 것이다. 가사노동과 육아 활동 분배를 해석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류 이론이 있다. 이는 시간 제약 이론, 상대적 자원 이론,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최신의 생활 건강 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위 이론들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과 육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찾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과 육아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기존연구 검토

가족간의 무급가사노동시간 분배에 대한 연구는 한국 국내외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현재 부부간 가사노동의 분배원리에 대해서는 3 가지 주류 이론이 있다. 이는 바로 시간제약이론, 상대적 자원이론,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론이다. 본 절에서는 세 가지 이론을 각각 나누어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어 기존 연구들에서 각 이론을 통하여 남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2.1. 시간제약이론

시간제약이론은 개인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을 분배하는 행위를 분석하는 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같은 가구 내에서 개인들이 제한된 하루 24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개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설명한다 (Eun, 2009). 가사노동시간 분배 시 가장 우선시하는 요인은 개인 혹은 가족 전체의 이익이다. 이 때문에 부부 중 경제활동 시간이 더 짧은 사람이 집안의 가사노동을 더 많이 분담하고, 반대로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사노동을 덜 하여 유급노동시간을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시간제약이론이 개인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연구들 중 대부분은 남편과 아내의 유급노동시간 (paid-work time)이 독립변수가 되어 유급노동의 효용가치를 측정한다.

미국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육아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있다 (Shelley, 1985; Francine, Julianne and Laura, 1993). 반면에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면 길수록 보통 남편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Shelley, 1985; Joan, Gail and Thoroddur, 1998). 아내와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각각 시간제약이론과 동일하게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육아에 있어서는 아내가 육아에 투자한 시간이 많을 수록 남편도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Joan, Gail M. and Thoroddur, 1998). 시간제약이론과 상반된 이러한 결과는, 육아와 가사노동은 본질이 다르고 가정내의 무급노동 시간을 연구할 때 두 활동을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통계청의 2004 년 한국생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¹에 따르면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시간제약이론에 부합하여 본인과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에 따라 통계상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연구결과를 통해 시간제약이론은 남편들이 집안일을 참여하는 행위를 분석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¹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 2007.4, 147-174

2.2. 상대적 자원이론

가사노동은 힘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경제적인 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가정구성원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일도 아니다 (은기수, 2009). 따라서 가사노동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자원 이론은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가정의 가사노동시간분배는 구성원들이 서로 협상한 결과이고, 자원을 더 많이 가진 자가 협상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원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가족들보다 가사노동을 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을 통하여 상대적 자원이 개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상대적 수입수준, 상대적 교육수준, 그리고 직장에서의 직위차이 등의 변수들을 통하여 부부 사이의 자원 차이를

측정했다. 이어서 상대적 자원 이론을 이용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육아를 제외한 가사노동에 관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자원들이 이론에서 예상한 바와 달리 다양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내의 상대적 수입 수준이 남편의 일상적인 가사노동 참여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고 (Marjorie E, 1994), 남편들은 직장에서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Shelley, 1985). 그러나 미국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경제적 변수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1999 년, 2004 년, 그리고 2009 년 한국 생활 건강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²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편들은 다른

²조미라, 윤수경 (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 -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44, 2014. 6, pp. 5-30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남편들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결과를 통해 남편들의 상대적 경제능력이 그들의 가사노동 참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럼 교육 수준 차이는 남편들의 가사 노동과 육아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준 차이와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와의 관계는 이론에서 예상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남편이 가사노동을 덜 하는 현상이 있다.³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생활 건강 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교육 수준

³ Starrels, M. E. (1994). Husbands involvement in female gender-typed household chores. *Sex Roles*, 31(7-8), 473-491. doi:10.1007/bf01544202

차이와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⁴

2.3. 성 이데올로기 이론

성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는 성별에 대한 관념이 가정 내의 노동 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성 역할에 대한 태도와 성별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측면을 통해 분석되었다(LEE 2014). 성 역할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평등한 태도가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노동이 더 평등하게 분배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 디스플레이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은 그들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⁴ 조미라, 윤수경 (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 -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44, 2014. 6, pp. 5-30

이미지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상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남편들이 한국에서 집안일을 덜 한다는 현상을 보충 설명해 준다.

응답자의 성 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나은 형태의 결혼생활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라는 질문이 이전 연구들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Marjorie E, 1994; Shelley, 1985; Cho & Yun, 2014; Eun 2009).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성 이데올로기 요인이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에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가사 노동 참여에 대해서는 미국 2 차 아동 조사(wave 2 of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1981))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성 이데올로기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개인의 성 역할 태도는 아내의 수입 수준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에 미친 영향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Marjorie E, 1994). 그러나 1977 년 미국 고용 실태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⁵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의 성 역할 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9 년 한국 통계청 생활건강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편과 아내의 성 역할 태도가 남편의 가사 노동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99 년과 2004 년의 생활건강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⁶에서는 성 역할 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던 교육수준도 한국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 요인은 본인의 성 역할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석했다.

⁵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2009.12, 145-17

⁶조미라, 윤수경 (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 -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44, 2014. 6, pp. 5-30

육아 참여의 경우에는, 성 역할 태도가 남자의 육아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의 전국 가정 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in 1987~1988 and 1992~1993) 자료에 따르면 평등적 성 역할 태도를 가진 아버지 중에 자식 나이가 네 살 이하인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보다 육아 시간이 더 길었다. 그러나 아이 나이가 5~9 살이 되면 성 역할 태도가 남편의 육아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Joan, Gail M. and Thoroddur, 1998).

2.4.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제약 요인, 상대적 자원 요인,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한국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연구 대상은 결혼하여 한 자녀 이상을 가진 한국인 남편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 통계청에서 2014 년에 수집된 생활건강조사 결과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 문제 1: 남편과 아내의 유급 노동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와 육아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 가설 1: 남편의 유급 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참여가 줄어든 것이다.
 - ✧ 가설 2: 아내의 유급 노동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참여가 많아질 것이다.

➤ 연구 문제 2: 부부간의 경제적 수입 차이, 교육 수준 차이 그리고 직장내의 직책 차이가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가설 3: 부부간의 경제적 수입 차이, 교육 수준 차이 그리고 직장내의 직책 차이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과 육아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

➤ 연구 문제 3: 남편과 아내의 성 이데올로기가 각각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가설 4. 진보적인 성향의 남편일수록 남편 스스로 가사노동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가설 5. 진보적인 성향의 아내일수록 그의 남편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3. 데이터와 변수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2014 년 한국통계청에서 수집한 생활건강조사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통계청에서 수집한 생활건강 조사의 데이터 범위를 비롯하여 수집 시간, 수집 목적 등의 기본 정보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원래의 기존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 변수들을 재부호화하는 방법 및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3.1. 데이터

1999 년부터 실시된 한국통계청의 생활건강조사는 전국적으로 5 년마다 실시되며 세 가지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의 시간 사용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의 생활 양식과 삶의 질, 웰빙 지수를 측정한다. 다음으로 가족 부양이나 가사노동과 같은 비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인들의 비경제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 분야에서의 정책이나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014 년 생활건강조사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이다. 조사는 세 단계로 나뉘어 7 월 (2014.7.16~7.30), 9 월 (2014.9.16~10.1), 그리고 12 월 (2014.11.25~12.10)에 실시되며, 전국 12000 가구에서 10 살이상인 한국인들의 연속 이틀 동안의 시간사용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목표는 한국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와 육아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공식적인 정의에 따르면 가사노동과 육아에 포함된 활동은 표 1 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Childcare work and housework

Composition of Childcare and Housework		
Childcare	Pre-school children	1. physical care 2. reading books, helping with study 3. playing 4. nursing 5. other
	Elementary/middle/high school children	1. bathing, helping with going to school 2. helping with school assignment and study 3. visiting school for counseling and school activities 4. nursing 5. other
Housework	Cooking	preparing meals and tidying, washing dishes, cooking dessert, etc
	Tidying	tidying, arranging in order, other
	Laundry	laundry, ironing, sewing, knitting, etc
	Maintenance	plumbing, mending, washing car, related services, direct house care
	Managing	household managing, banking, etc
	Other	other

3.2. 변수

3.2.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과 육아 시간을 직접적으로 종속변수로 사용하지 않으며 두 변수를 “가사노동참여율” 과 “육아 참여율”이라는 변수로 재설정하였다. 참여율의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text{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 = 100 * H1 / (H1 + H2)^7$$

$$\text{남편의 육아 참여율} = 100 * C1 / (C1 + C2)^8$$

이처럼 기존 가사노동시간 변수와 육아 시간 변수를 분리하여 재설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⁷ H1=남편의 가사노동시간, H2=아내의 가사노동시간

⁸ C1=남편의 육아 시간, C2=아내의 육아 시간

첫 번째 이유는 가사노동과 육아는 본질이 완전히 다른 활동이라는 것이다. 앞서 기존 연구 검토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사노동 시간 변수와 육아 시간 변수는 같은 요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대적 자원 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아내의 수입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많아졌으나 아내의 수입 수준이 남편의 육아 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 결과가 있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Suzanne, Liana, Melissa and John, 2012).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참여에 대한 견해가 본질적으로 매우 다름을 보여 준다. 이에 가사노동 참여 시간과 육아 참여 시간을 같은 종속 변인으로 보지 않고 따로 재설정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절대적인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는 가사노동량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아닌 가사노동의 참여 비율로 설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절대적 시간(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렇게 절대적 시간을 종속변수로 보는 것은 가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가사노동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각각 가사노동량이 2 시간, 4 시간인 A 가정과 B 가정이 있을 때 두 집안의 남편들이 각각 30 분 동안 가사노동 참여를 했다면 이 30 분의 시간으로 두 남편의 차이(즉, 둘 중 누가 더 가사노동 참여에 적극적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각 가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가사노동량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비율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육아 참여 비율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이유도 이와 같다.

3.2.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약이론과 상대적자원이론,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이론을 바탕으로 독립 변수를 설정하였다.

시간제약 요인: 남편의 유급노동시간과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은 부부의 시간제약을 측정하는 요소로 설정하였다. 데이터는 2014 년 한국통계청의 생활건강조사에서 분 단위로 수집된 자료이다. 남편의 유급노동시간 범위는 0~1,140 분이며 아내의 유급노동시간 범위는 0~980 분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자원 요인: 상대적자원 관점에 의해 세 가지의 독립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는 소득의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 직업의 차이이다. 먼저 소득에 대하여 설문지에서 대상의 개인 월수입과 가정의 월소득 수준을 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설문지에서 정확한 소득을 물어보지는 않았다. 대신 12 개의 그룹(0, 50 만원 미만, 50 만원~100 만원 미만, 100 만원~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 만원~250 만원 미만, 250 만원~300 만원 미만, 300 만원~350 만원 미만, 350 만원~400 만원 미만, 400 만원~450 만원 미만, 450 만원~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으로 나누어 소득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존 연구와 같이 수입 비율을 측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상대적 소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가변수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가변수는 아내가 남편보다 수입 수준이 높은 경우($income_dum\ 1=1$)이며, 두 번째 가변수는 남편과

아내의 수입 수준이 같은 경우($income_dum2=1$)이다. 세 번째 가변수는 남편이 아내보다 수입 수준이 높은 경우($income_dum3=1$)이다. 그 중 두 번째 가변수 그룹을 통계의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교육 수준의 경우에는 2014 년 설문지에서 두가지 질문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응답자들이 받은 가장 높은 교육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응답자들에게 재학 여부 등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질문에 대응한 기존 변수들을 세 가지의 가변수로 재설정하였다. 첫 번째 가변수는 아내가 남편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education_dum1=1$)이며, 두 번째 가변수는 남편과 아내의 교육 수준이 같은 경우($education_dum2=1$)이다. 세 번째 가변수는 남편이

아내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education_dum3=1)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가변수를 통계의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 상대적 자원 이론에 관한 요인은 부부간 직업 지위의 차이이다. 원래의 조사자료를 보면 응답자들의 직업은 10 개의 범주로 나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범주는 (a)전문적이거나 경영적인 직업과 (b)비전문적, 비경영적인 직업 두 유형으로 나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가변수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가변수는 아내가 남편보다 직업 지위가 높은 경우(occ_dum1=1)이며, 두 번째 가변수는 아내와 남편의 직업 지위가 같은 경우(occ_dum2=1)이다. 세 번째 가변수는 남편이 아내보다 직업 지위가 높은 경우(occ_dum3=1)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가변수 그룹을 통계의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성 이데올로기 요인: 2014 년 설문조사에서, 설문 대상들에게 '남자는 경제활동에, 여자는 집안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해 동의하는가' 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이 질문에서는 4 가지 옵션을 제공하였다: (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동의하지 않는다 (4) 매우 반대한다. 해당 변수의 값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성 역할 태도가 더 진보적일 것이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성 역할 태도가 개인의 가사노동과 육아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할 때 이러한 변수를 직접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부부 간에 각자의 성 역할 태도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결함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을 더 전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성역할 태도를 짝으로 조합해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였다. 재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 역할

태도를 진보적인 경우(기존 변수에서 (1)과 (2)에 속한 자)와 전통적인 경우(기존 변수에서 (3)과 (4)에 속한 자)로 간략화하였다. 그 다음에 가능한 부부 태도의 조합에 따라 응답자 부부를 네 가지의 그룹으로 나눴다. 이는 (1)부부 둘 다 전통적인 경우, (2)부부 둘 다 진보적인 경우, (3)남편만 전통적인 경우, (4)남편만 진보적인 경우이다. 이 네 가지의 경우에 따라 네 가지 가변수를 만들고 가변수(1) (즉 부부 둘 다 전통적인 경우)를 통계적 준거 변수로 설정하였다.

3.2.3.통제변수

위에서 서술한 시간 제약 요인, 상대적 자원 요인,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 요인 외에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많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가지 이론적 관점에 맞추기가 어려운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설정 되었다. 다음은 각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1. 가구원 수: 가구원의 수가 많을 수록 이에 따라 총
가사노동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가구원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는 육아
노동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통 가장 어린 자녀가 어릴
수록 육아에 관한 노동량이 많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부부들을 그들의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0 살부터 6 살까지인 경우이며, 이어서 7 살부터
12 살까지, 그 다음에 13 살부터 18 살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 살 이상인 순으로 나누었다.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그룹에
대응한 네 개의 가변수를 구성하고 첫 번째 그룹(0~6 살인
경우)을 준거 변수로 설정하였다.
3. 남편의 나이와 아내의 나이

4. 평일, 토요일과 일요일: 평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따라 세 가지 가변수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 평일에 대응한 가변수를 준거 변수로 설정하였다.
5. 도시 주민과 비도시 주민: 대상자의 거주지가 도시인지 비도시인지에 따라 두 개의 가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중 도시에 해당하는 가변수를 준거 변수로 설정하였다.)
6. 맞벌이 부부: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 방식을 맞벌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다.

Table 2. Basic information of variables

Variables	Number(%)
total number of couples	9292
husband's average housework involvement	11.9%(19.2)
husband's average childcare involvement	21.8%(27.7)
husband's average paid work time (mins)	384.5
wife's average paid work time (mins)	171.3
relative income	
wife more (%)	626(6.74%)
same (%)	726(7.81%)

husband more (%)	7940(85.5%)	
relative education level		
wife higher (%)	1260(13.6%)	
same (%)	5542(59.6%)	
husband higher (%)	2490(26.8%)	
relative age		
wife older (%)	944(10.2%)	
same (%)	1088(11.7%)	
husband older (%)	7260(78.1%)	
relative occupation status		
wife higher (%)	856(9.2%)	
same (%)	7140(76.8%)	
husband higher (%)	1296(13.95%)	
sex role attitude	husband's	wife's
very agree (%)	840(9%)	356(3.8%)
agree (%)	3754(40.4%)	2158(23.2%)
disagree (%)	3712(40%)	4254(45.8%)
very disagree (%)	985(10.6%)	2524(27.2%)
total number of family member		
3	3442(37%)	
4	4580(49.3%)	
5	1036(11.2%)	
6	212(2.3%)	
7	22(0.2%)	
youngest child		
0~6 years old	3100(33.4%)	

7~12 years old	1860(20%)
13~18 years old	1906(20.5%)
19 or above	2426(26.1%)
urban resident	8066(86.8%)

표(2)는 분석할 변수의 기본 정보를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9292 쌍의 커플을 분석하였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남편의 참여율이 각각 11.9%와 21.8%이다. 남편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384.5 분이며, 아내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171.3 분이다.

상대적 자원 관점에 관한 요인 중에 가장 불평등적인 분야는 소득이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본 연구의 응답자 중에 남편이 아내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의 비율이 85.5%에 달했다. 이에 비해 교육수준과 직장 지위는 평등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는 59.6%를 차지하고, 남편과 아내의 직장 지위가 같은 비율이 76.8%에 달했다.

성 이데올로기에 관한 요인에서는 전통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의 비율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의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에는 73%의 응답자가 “여자가 집안일, 남편이 경제활동”이라는 전통적 관념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표시했다. 이를 통해 아내가 남편보다 성 역할에 대해서 훨씬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 변수의 경우에는 86.3%의 응답자 부부가 3인 가족 또는 4인 가족에 속해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핵가족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가정의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는 각 연령대별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부부가(86.8%) 도시 주민이고 과반수의 부부는(52%) 맞벌이다.

4. 분석결과

4.1.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

4.1.1. 기술 연구

표 3 은 시간제약 관점, 상대적 자원 관점,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남편들의 평균 가사노동 참여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섹션에서는 한국남편들의 평균 가사노동 참여율의 각 이론적 관점에 따른 변화를 그래프와 함께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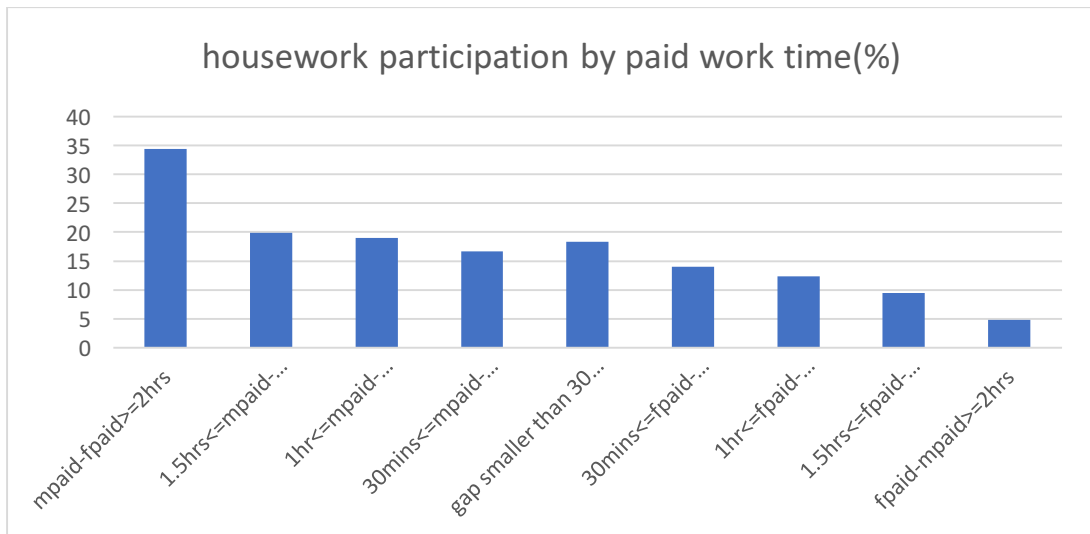
Table 3.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different factors

Paid-work time gap	housework participation by paid work time(%)	sd
---------------------------	--	----

mpaid-fpaid \geq 2hrs	34.39034	30.10714
1.5hrs \leq mpaid-fpaid $<$ 2hrs	19.87148	24.82279
1hr \leq mpaid-fpaid $<$ 1.5hrs	19.03056	27.34743
30mins \leq mpaid-fpaid $<$ 1hr	16.62501	24.48976
gap smaller than 30 mins	18.38163	19.63654
30mins \leq fpaid-mpaid $<$ 1hr	14.0006	20.33701
1hr \leq fpaid-mpaid $<$ 1.5hrs	12.3273	17.41341
1.5hrs \leq fpaid-mpaid $<$ 2hrs	9.411033	14.43163
fpaid-mpaid \geq 2hrs	4.77674	10.90845
relative income	housework participation by income gap (%)	sd
wife more income	23.28582	28.26497
same income	16.43789	22.49534
husband more income	10.57123	17.55368
Relative education	housework participation by education level(%)	sd
wife higher education	11.68237	19.33076
same education	11.80106	18.96407
husband higher education	12.12754	19.57268
relative occupation status	housework participation by workplace status(%)	sd
wife higher status	15.89092	22.35439
same status	11.68771	19.15646
husband higher status	10.24679	16.5113
Sex-role pairing	housework participation by gender ideology(%)	sd
Traditional couple	10.02561	17.61294
Husband traditional	9.773385	16.80336
Progressive couple	13.95552	20.86859
Husband progressive	13.2649	20.61405

4.1.1.1.시간제약 관점

Graph 1.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paid work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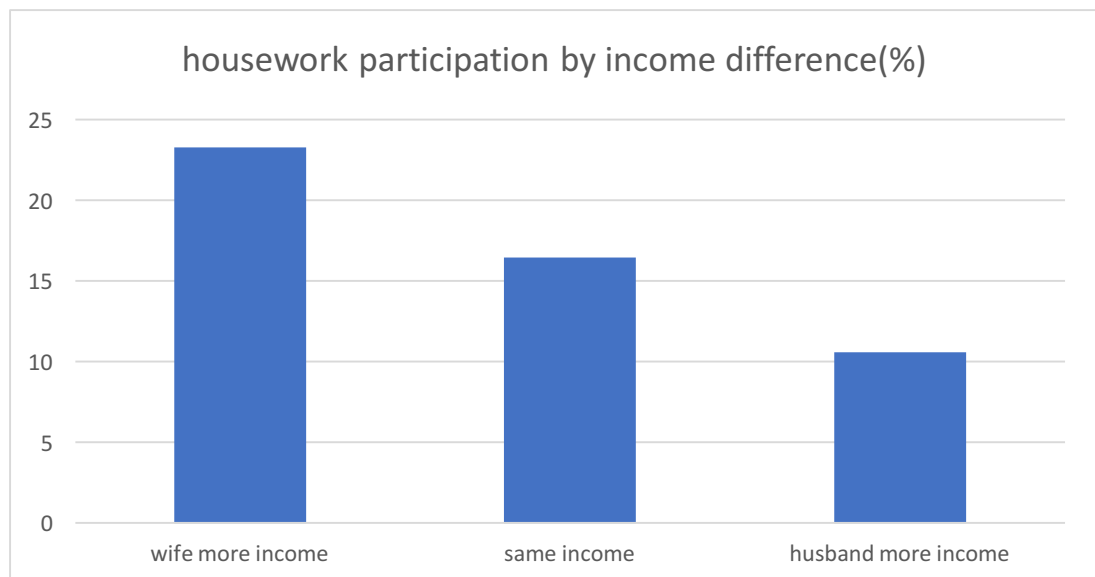
우선,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율을 시간 제약 관점을 통해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유급 노동 시간이라는 기존 변수로 남편과 아내의 시간 제약 수준을 측정한다.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기존의 연속적인 유급노동시간 변수를 9 개의 변수로 나누었다. 이 변수들은 (1)아내가 유급 노동에 남편보다 최소 2 시간 더 많이 투입한 경우 (2)유급 노동에 아내가 남편보다 2 시간 미만 1.5 시간

이상 더 많이 투입한 경우 (3)유급 노동에 아내가 남편보다 1.5 시간 미만 1 시간 이상 더 많이 투입한 경우 (4)유급 노동에 아내가 남편보다 1 시간 미만 0.5 시간 이상 더 많이 투입한 경우 (5)부부간의 유급노동시간 차이가 30 분 미만인 경우 (6)유급 노동에 남편이 아내보다 1 시간이하 0.5 시간 이상 더 많이 투입한 경우 (7)유급 노동에 남편이 아내보다 1.5 시간 미만 1 시간 이상 더 많이 투입한 경우 (8)유급 노동에 남편이 아내보다 2 시간 미만 1.5 시간 이상 더 많이 투입한 경우 (9) 유급 노동에 남편이 아내보다 2 시간 이상 더 많이 투입한 경우 등 9 개의 경우로 나누었다. 그래프(1)은 부부 간의 유급 노동 시간 차이에 따른 남편의 평균 가사 노동 참여의 변화를 시각화하였다. 남편이 아내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질 수록 본인의 가사 노동 참여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시간 제약 이론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이다.

4.1.1.2. 상대적 자원 관점

다음은 상대적 자원에 따른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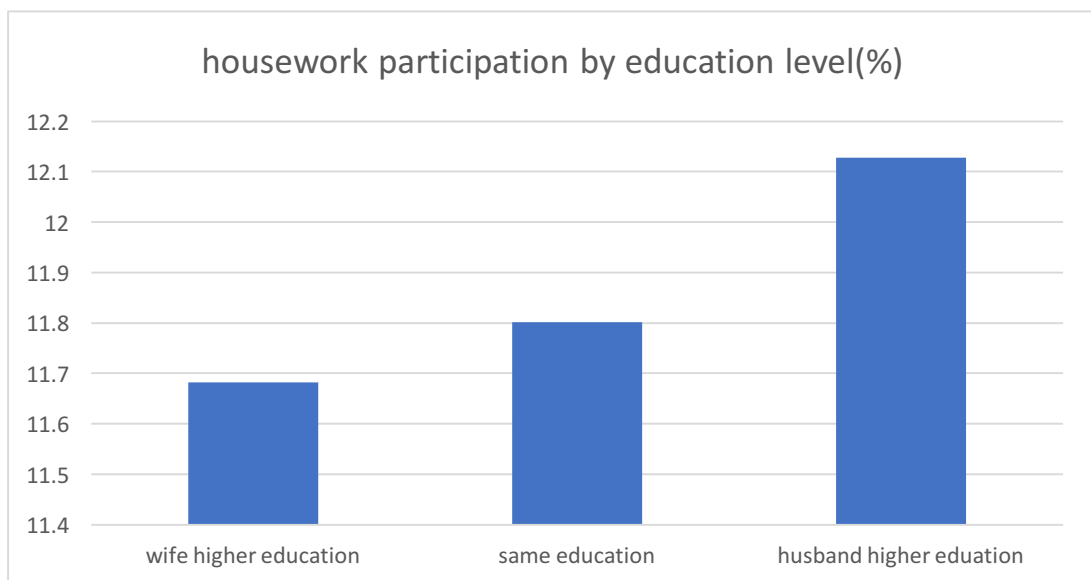
Graph 2.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income difference



먼저 그래프(2)는 소득 차이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의 변화를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소득 차이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1)아내가 남편보다 소득이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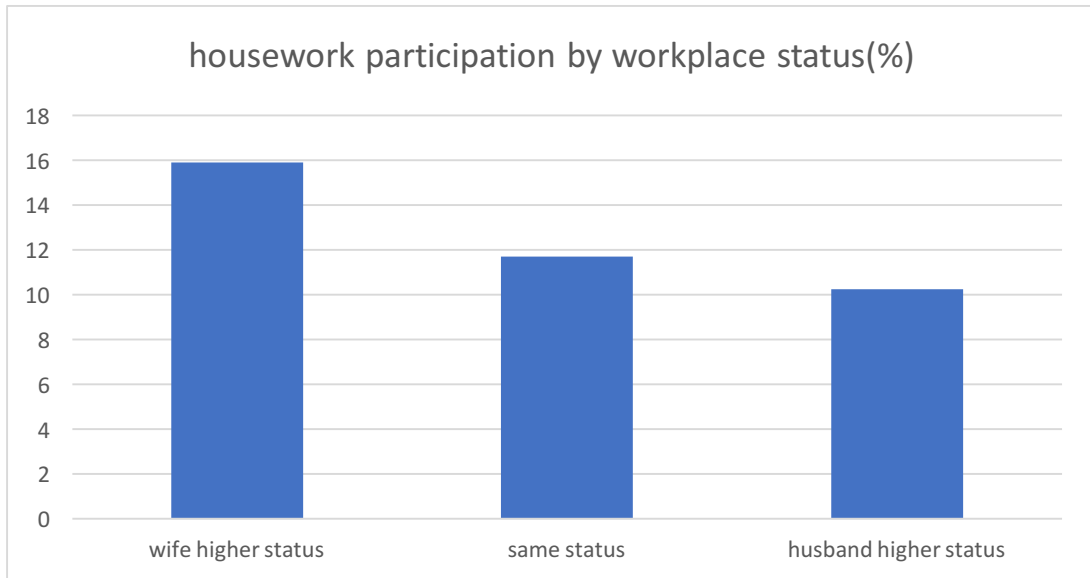
많은 경우이며, 두 번째 그룹은 (2)아내와 남편의 소득 수준이 같은 경우다. 마지막으로 (3)남편이 아내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경우다. 그룹(1)에 속하는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제일 높고 그룹(3) 남편들의 참여율이 제일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아내 소득에 대비한 남편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Graph 3.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education level



그래프(3)은 부부간의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남편 가사노동 참여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소득 차이의 경우와 비슷하게,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교육수준 차이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1)아내가 남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2)부부의 교육수준이 같은 경우, 그리고 (3)남편이 아내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그것이다. 그래프(3)을 통해 남편들이 아내들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 노동 참여율이 상승한다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는 본 논문의 가설과 맞지 않은 결과이며 남편들의 상대적 교육수준이 그들의 가사노동 참여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Graph 4.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workplace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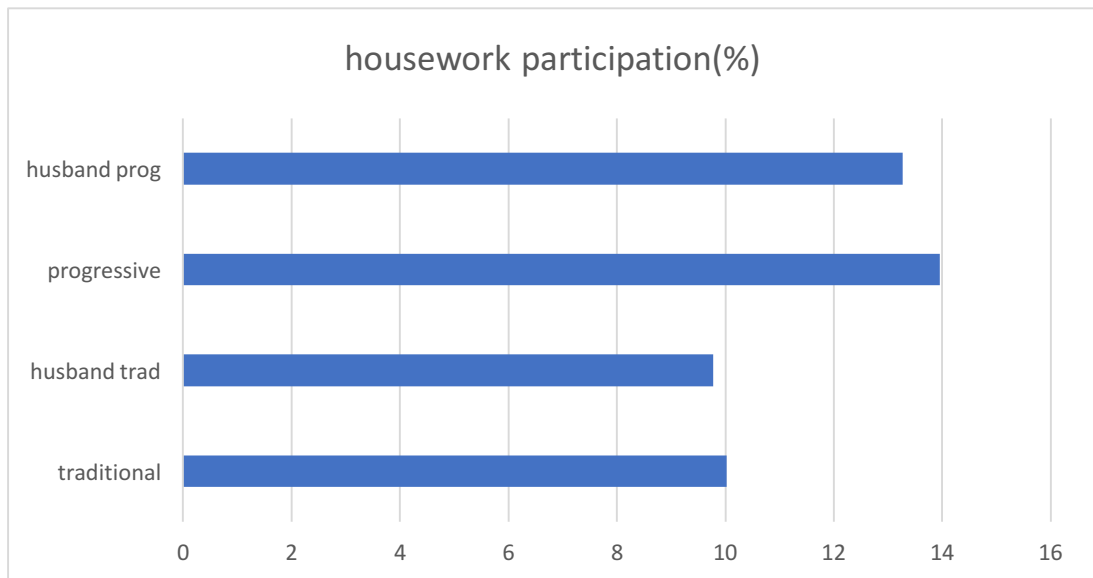


그래프(4)는 부부 간 직장 지위의 차이에 따른 남편의 가사 참여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부부간의 직장 지위 차이는 (1)아내가 남편보다 직장 지위가 높은 경우, (2)남편과 아내의 직장 지위가 같은 경우, 그리고 (3)남편이 아내보다 직장 지위가 높은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결국 경우(1)의 남편들이 평균 가사 노동 참여율이 제일 높았고 경우(3)의 남편들이 제일 낮은 가사노동 참여율을

가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 비해 직장 지위가 높을 수록 가사 노동 참여가 줄어든다는 경향을 보여준다.

4.1.1.3. 성 이데올로기 관점

Graph 5. Korean husbands' average housework participation by gender ideology pairing



마지막으로 부부의 성 역할 태도에 따른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는 진보적인 아내가 있는 진보적인 남편들이 가사 노동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부부 둘다 보수적인 경우에는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제일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래프(5)의 결과에 따르면 진보적인 아내가 있는 진보적인 남편들이 예상대로 가사노동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 그러나 가사노동 참여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예측과 달리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아내가 있는 보수적인 남편들이었다. 그리고 아내의 태도와 상관없이, 진보적인 남편들이 보수적인 남편들에 비해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했다. 또한 남편의 진보적인 성 역할 태도는 그들의 가사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반면, 아내의 진보적인 성 역할 태도는 진보적인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는 증가시키는 동시에 보수적 남편들의 가사노동은 감소시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1.2.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회귀분석

Table 4. Regression on Korean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by different factor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Father's paid-work time	-0.034*** (0.001)			-0.033*** (0.001)
Mother's paid-work time	0.027*** (0.001)			0.025*** (0.001)
Wife earns more		6.723*** (1.024)		2.850*** (0.929)
Husband earns more		-4.882*** (0.74)		-1.849*** (0.672)
Wife of higher education		0.046 (0.588)		0.296 (0.531)
Husband of higher education		0.794* (0.45)		0.657 (0.406)
Wife of higher occupation status		2.905*** (0.712)		1.901*** (0.643)

Husband of higher occupation status	-0.327			0.013
	(0.573)			(0.517)
Progressive couple			3.845***	1.886***
			(0.558)	(0.501)
Only husband is traditional			-0.368	-0.677
			(0.58)	(0.518)
Only husband is progressive			2.810***	2.334***
			(0.805)	(0.72)
Number of family member	-0.391	-0.418	-0.596**	-0.313
	(0.247)	(0.273)	(0.275)	(0.247)
Youngest child 7~12	-1.752***	-1.782***	-2.022***	-1.617***
	(0.529)	(0.583)	(0.588)	(0.527)
Youngest child 13~18	-4.243***	-4.411***	-4.880***	-3.955***
	(0.589)	(0.647)	(0.652)	(0.588)
Youngest child 19+	-1.670**	-2.106***	-2.733***	-1.306*
	(0.723)	(0.797)	(0.8)	(0.723)
Saturday	1.336***	6.249***	6.283***	1.482***
	(0.5)	(0.498)	(0.503)	(0.498)

Sunday	-0.293 (0.554)	7.200*** (0.498)	7.374*** (0.503)	-0.182 (0.551)
Urban resident	0.549 (0.519)	-0.129 (0.574)	0.081 (0.578)	0.493 (0.518)
Dual-earner	-2.573*** (0.454)	1.460*** (0.42)	2.237*** (0.407)	-3.016*** (0.469)
Father's age	0.021 (0.056)	0.149** (0.062)	0.183*** (0.063)	0.018 (0.056)
Mother's age	-0.107* (0.06)	-0.025 (0.066)	0.003 (0.067)	-0.111* (0.06)
_cons	27.750*** (1.579)	9.341*** (1.866)	1.855 (1.703)	27.852*** (1.825)

*p<0.1, **p<0.05, ***p<0.01

표 4 는 한국 남편의 가사 참여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4 가지의 모델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시간 제약 요인들만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상대적 자원 요인들만 고려했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성 이데올로기 요인들만의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모든 요인들을 합쳐서 분석한 것이다.

모델 1 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유급 노동 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회귀 계수를 보면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율은 본인의 유급 노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가 하면, 아내의 유급 노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는 관계를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가설과 기술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그래프(1))과 동일한 결과이다.

상대적 자원에 관한 변수만 고려한 모델 2 에서는 소득 수준 차이 변수와 직장 지위 차이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소득 수준 차이 변수들의 회귀 계수를 보면 아내의 소득 수준에 비해 남편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줄어든다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직장 지위 차이 변수에 대해서는 아내의 직장 지위가 남편의 직장 지위 보다 더 높으면 남편이 더 많은 가사노동에 참여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결과들은 기술 연구 부분에서 그래프 2 와 그래프 3 을 통해 보여준 추세와 동일한 것이다.

이제 성 이데올로기 변수만을 고려한 모델 3의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성 이데올로기에 관한 변수 중에 “진보적인 부부”와 “남편만 진보적이다”라는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다. 준거 변수가 “전통적인 부부”로 설정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델 3 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진보적인 남편들이 전통적인 남편들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 두 변수의 회귀 계수를 비교하면 “진보적인 부부”의 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진보적인 태도는 진보적인 남편들로 하여금 가사노동을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설정한 가설과 기술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모델 4 를 살펴볼 것이다. 모델 4 에서는 모든 독립 변수들을 넣어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면 모델 1, 2, 3 에서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 모델 4 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계수들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부의 유급노동시간, 소득 수준 차이, 아내가 남편보다 직장 지위가 더 높은 경우, 남편의 성 역할 태도와 진보적인 남편의 아내의 성 역할 태도 등 5 개의 요인들이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설정한

가설들과 비교하면,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상대적 자원
관점 부분을 제외하고 시간 제약 관점과 성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는
예상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독립 변수의 영향 외에도,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평일 여부, 그리고
커플의 경제 활동 참여 패턴을 포함한 통제 변수는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에 중요한 요소이다.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7~18 살인 경우
회귀 계수가 유의미하고 음수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어린 자녀가
7~18 살인 남편들보다 가장 어린 자녀가 0~6 살인 남편들이 더 높은
가사 노동 참여율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편들이
토요일에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라면
더 적은 가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2. 한국 남편들의 육아 참여

4.2.1. 기술 연구

표 5 는 시간제약 관점, 상대적 자원 관점,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남편들의 평균 육아 참여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섹션에서는 각 이론적 관점에 따른 한국 남편들의 평균 육아 참여율 변화를 그래프와 함께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Table 5.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different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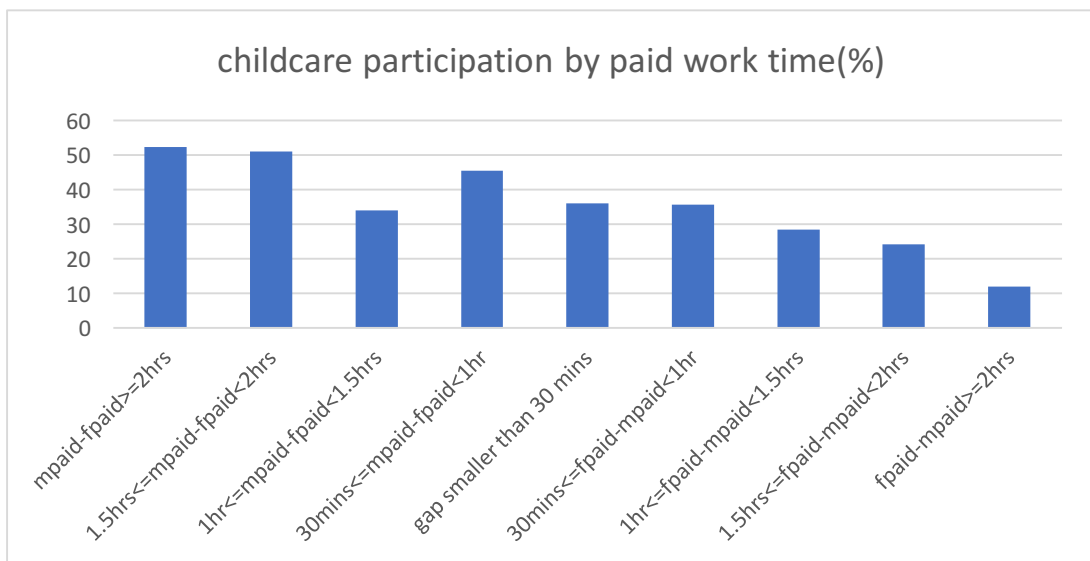
Paid-work time gap	childcare participation by paid work time(%)	sd
mpaid-fpaid \geq 2hrs	52.32776	39.79302
1.5hrs \leq mpaid-fpaid $<$ 2hrs	50.98604	37.64518
1hr \leq mpaid-fpaid $<$ 1.5hrs	34.0265	34.45257
30mins \leq mpaid-fpaid $<$ 1hr	45.35743	35.49302
gap smaller than 30 mins	36.05762	30.43135

30mins<=fpaid-mpaid<1hr	35.61118	29.37925
1hr<=fpaid-mpaid<1.5hrs	28.48085	30.48963
1.5hrs<=fpaid-mpaid<2hrs	24.19995	26.60025
fpaid-mpaid>=2hrs	11.93691	18.70531
Relative income	childcare participation by income gap(%)	sd
wife more	32.15783	35.52436
same	31.00065	33.60614
husband more	20.45823	26.47327
Relative education	childcare participation by education(%)	sd
wife higher level	20.7995	27.27837
same level	22.51398	28.33538
husband higher level	20.72316	26.70956
Relative occupation	childcare participation by occupation(%)	sd
wife higher status	26.64621	31.40815
same status	21.09875	27.30748
husband higher status	21.34061	26.77525
Sex-role pairing	childcare participation by ideology(%)	sd
Traditional couple	19.47047	26.33304

Husband traditional	18.88347	25.71338
Progressive couple	23.54456	28.52009
Husband progressive	28.70496	32.35947

4.2.1.1.시간 제약 관점

Graph 6.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paid-work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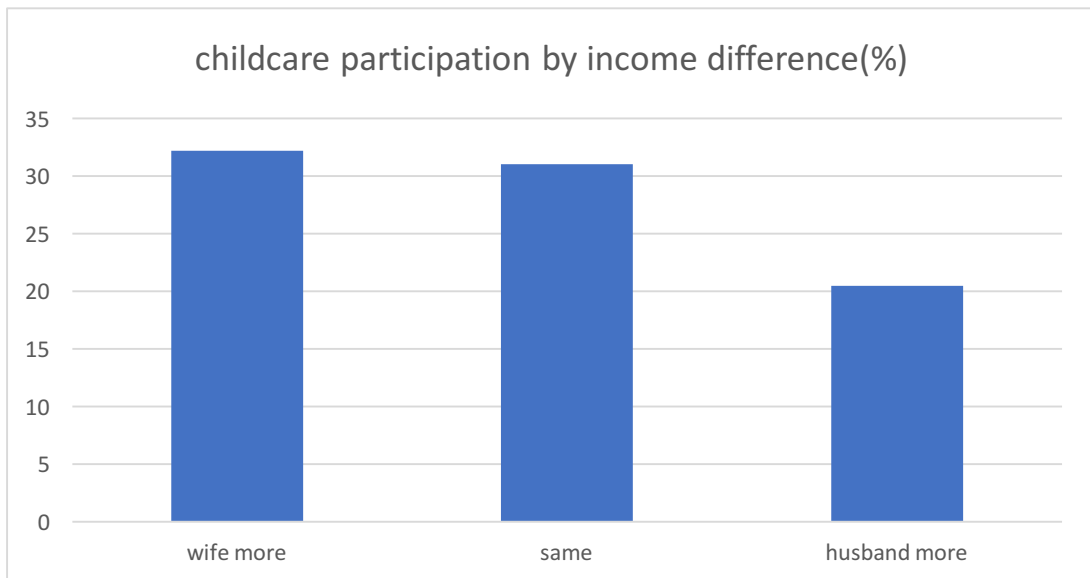
우선, 한국 남편들의 육아 참여율을 시간 제약 관점을 통해서 분석한다. 가사 노동 참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유급 노동 시간이라는 기존 변수로

남편과 아내의 시간 제약 수준을 측정한다. 기존의 연속적인 유급노동시간 변수를 9 개의 변수로 나누었다. 이 변수들은 (1)아내가 유급 노동에 남편보다 최소 2 시간 더 많이 투입한 경우 (2)유급 노동에 아내가 남편보다 2 시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시간 제약 이론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이다.

4.2.1.2. 상대적 자원 관점

다음은 상대적 자원에 따른 남편들의 육아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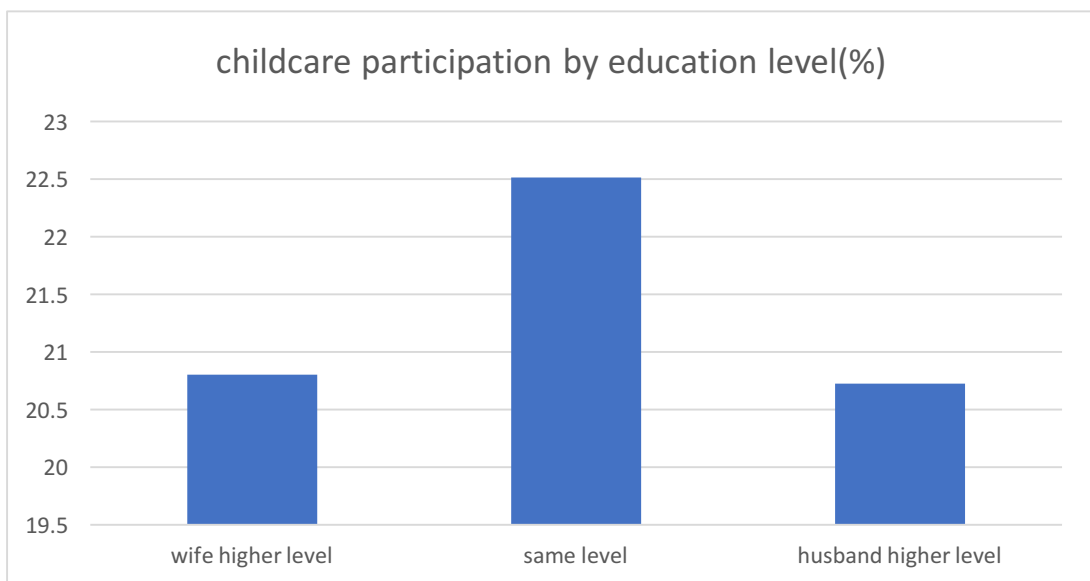
Graph 7.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income difference



먼저 그래프(7)은 소득 차이에 따른 남편의 육아 참여율의 변화를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소득 차이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1)아내가 남편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경우이며, 두 번째 그룹은 (2)아내와 남편의 소득 수준이 같은 경우다.

마지막으로는 (3)남편이 아내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경우다. 그룹(1)에 속하는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제일 높고 그룹(3) 남편들의 참여율이 제일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아내 소득에 대비한 남편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남편의 육아 참여율이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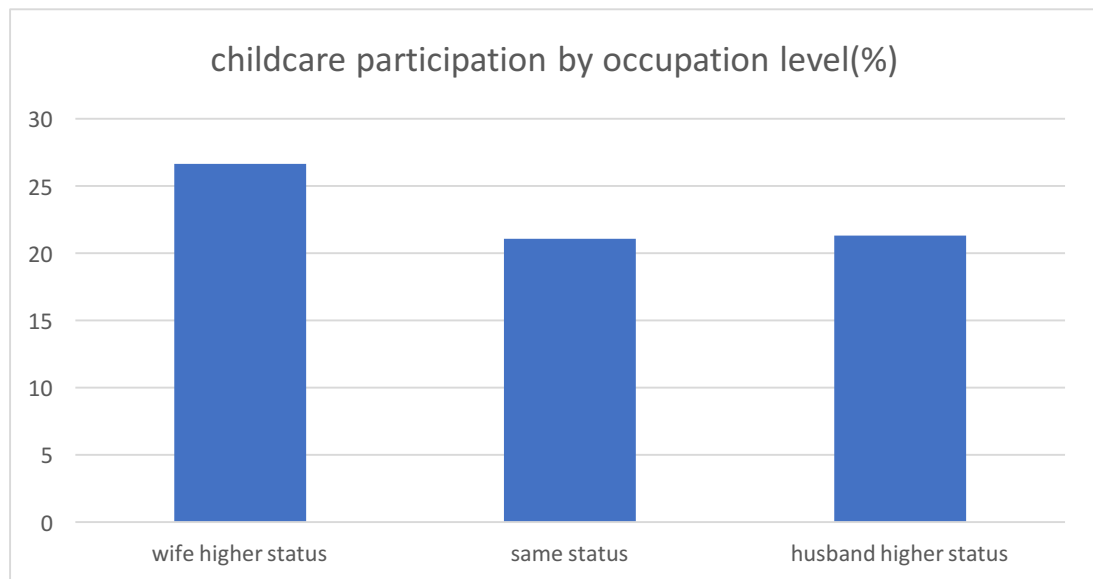
Graph 8.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education level



그래프(8)은 부부간의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남편 가사노동 참여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교육수준 차이를 (1)아내가

남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2)부부의 교육수준이 같은 경우, 그리고 (3)남편이 아내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누었다. 그래프(3)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이 비슷할수록 육아 참여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는 본 논문의 가설과 맞는 결과이며 부부간 교육수준의 차이와 남편의 육아 활동 참여율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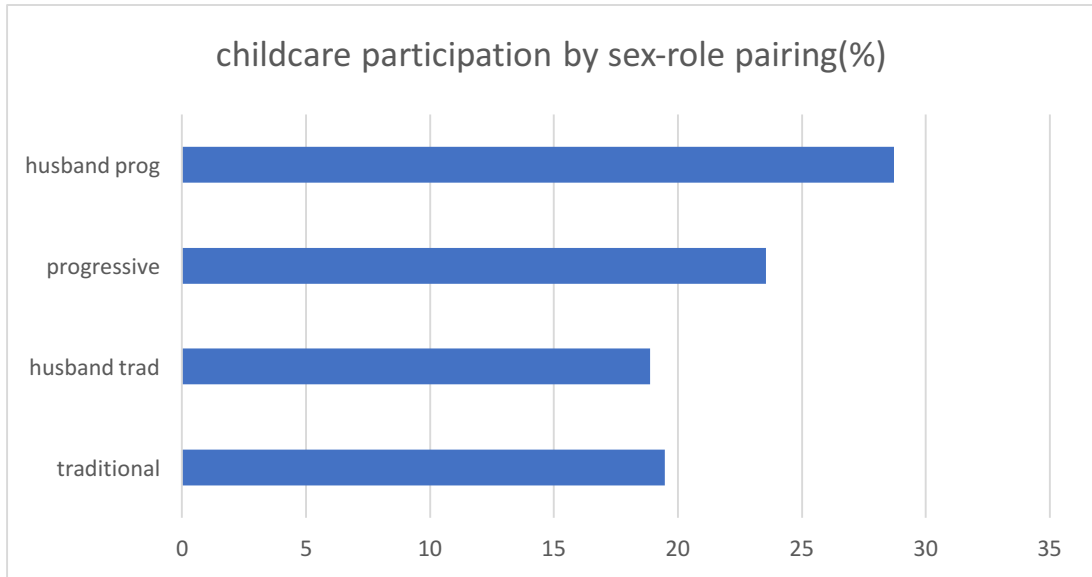
Graph 9.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occupation level



그래프(9)는 부부 간 직장 지위의 차이에 따른 남편의 육아 참여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부부간의 직장 지위 차이는 (1)아내가 남편보다 직장 지위가 높은 경우, (2)남편과 아내의 직장 지위가 같은 경우, 그리고 (3)남편이 아내보다 직장 지위가 높은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결국 경우(1)의 남편들이 평균 육아 참여율이 제일 높았고 다른 경우에는 남편들의 육아 참여율이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 비해 직장 지위가 높을 수록 육아 참여가 줄어든다는 경향을 보여준다.

4.2.1.3.성 이데올로기 관점

Graph 10. Korean husbands' average childcare participation by sex-role pairing



마지막으로는 부부의 성 역할 태도에 따른 남편들의 육아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 분석 부분과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아내가 있는 진보적인 남편들이 육아 노동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부부 둘다 전통적인 경우에는 남편들의 육아 노동 참여율이 제일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그래프(10)의 결과에 따르면 진보적인 부부 중의 남편들이 아닌 전통적인 관념을

가진 여자들의 남편들이 오히려 육아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육아 활동에 가장 적게 참여하는 그룹도 예상과 달리 진보적 태도를 가진 여자들의 남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남편들의 진보적인 성 역할 태도가 그들의 육아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에, 아내들의 진보적인 성 역할 태도는 오히려 남편들의 육아 참여를 낮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정된 가설과 다르며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4.2.2. 남편들의 육아 참여에 대한 회귀 분석

Table 6. Regression on Korean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by different factor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Father's paid-work time	-0.042***			-0.042***
	(0.002)			(0.002)
Mother's paid-work time	0.035***			0.034***

	(0.003)	(0.003)
Wife earns more	-0.017	-2.903
	(2.479)	(2.302)
Husband earns more	-7.966***	-4.432***
	(1.727)	(1.614)
Wife of higher education	-1.627	-1.620
	(1.161)	(1.078)
Husband of higher education	-0.960	-1.109
	(0.991)	(0.923)
Wife of higher occupation status	1.091	-0.346
	(1.468)	(1.365)
Husband of higher occupation status	2.154*	1.707
	(1.134)	(1.053)
Progressive couple	1.995	-0.103
	(1.254)	(1.171)
Only husband is traditional	-1.885	-2.466**
	(1.29)	(1.199)
Only husband is progressive	7.019***	5.332***

			(1.856)	(1.726)
Number of family member	-0.978*	-1.377**	-1.436***	-0.979*
	(0.506)	(0.545)	(0.544)	(0.505)
Youngest child 7~12	-2.096**	-2.738**	-2.880***	-1.991**
	(1)	(1.074)	(1.077)	(1.001)
Youngest child 13~18	-11.988	-9.890	-9.589	-12.496
	(17.282)	(18.575)	(18.599)	(17.238)
Youngest child 19+	-6.187	-13.417*	-12.918*	-6.068
	(6.74)	(7.243)	(7.24)	(6.722)
Saturday	4.088***	12.395***	12.304***	4.028***
	(1.18)	(1.09)	(1.09)	(1.177)
Sunday	5.635***	17.875***	17.664***	5.632***
	(1.308)	(1.09)	(1.09)	(1.306)
Urban resident	-1.737	-2.782**	-2.451**	-1.990*
	(1.137)	(1.224)	(1.222)	(1.135)
Dual-earner	0.257	6.941***	8.130***	0.198
	(1.038)	(0.954)	(0.87)	(1.09)
Father's age	-0.048	0.105	0.093	-0.057

	(0.12)	(0.129)	(0.129)	(0.12)
Mother's age	0.094	0.231*	0.265*	0.082
	(0.129)	(0.139)	(0.139)	(0.129)
_cons	36.959***	15.787***	6.665*	42.785***
	(3.298)	(3.793)	(3.4)	(3.908)

***p<0.1, **p<0.05, ***p<0.01**

표 6 은 한국 남편의 육아 참여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가사 노동 참여를 분석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4 가지의 모델로 남편의 육아 참여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시간 제약 요인들만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상대적 자원 요인들만 고려했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성 이데올로기 요인들만의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모든 요인들을 합쳐서 분석한 것이다.

모델 1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유급 노동 시간이 남편의 육아 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회귀 계수를 보면 남편의 육아 활동 참여율은 본인의 유급 노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가 하면 아내의 유급 노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는 관계를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가설과 기술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그래프(6))과 동일한 결과이다.

상대적 자원에 관한 변수만 고려한 모델 2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만 소득 수준 차이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소득 수준 차이 변수의 유의미한 회귀 계수를 보면 아내의 소득 수준에 비해 남편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남편들의 육아 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변수의 회귀 계수 절대 값이 8에 달한다. 이는 한국 남편들의 평균 육아 활동 참여율이 21.8%밖에 안 되는 상황과 같이

고려하면 남편들의 육아 참여에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래프(7)에서 보여준 육아 참여율의 변화를 검증했지만 그래프(8)과 그래프(9)에서 보여준 변화는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성 이데올로기 변수만을 고려한 모델 3의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성 이데올로기에 관한 변수 중에 “남편만 진보적이다”라는 변수만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다. 준거 변수가 “전통적인 부부”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델 3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아내가 전통적인 경우에 진보적인 남편들이 전통적인 남편들보다 더 많은 육아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계수의 값은 7.02로 나타났다. 이는 21.8%인 남편의 평균 육아 활동 참여율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숫자이며, 아내가 전통적인 경우에

남편의 성 역할 태도가 그들의 육아 참여를 증가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모델 4 를 살펴볼 것이다. 모델 4 에서는 모든 독립 변수들을 넣어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면 모델 1, 2, 3 에서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 모델 4 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계수들을 가지고, 추가로 “남편만 전통적이다”라는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가 되었다. “남편만 전통적이다”라는 변수의 회귀 계수는 -2.466 이다. 본 연구에서 “부부가 전통적이다”라는 변수를 준거 변수로 설정한 바를 고려하면, 이 숫자를 통해 아내의 진보적인 성 역할 태도가 오히려 전통적 남편의 육아 참여를 감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그래프(10)을 통해 서술한 현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독립 변수의 영향 외에도,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와 주말여부 등을 포함한 통제 변수는 남편의 육아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7~12 살인 경우 회귀 계수가 유의미하고 음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장 어린 자녀가 7~12 살인 남편들보다 가장 어린 자녀가 0~6 살인 남편들이 더 높은 가사 노동 참여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육아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토론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통계청 2014 년 생활건강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먼저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를 살펴보고, 이어서 시간 제약 이론, 상대적 자원 이론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부부 사이에서 노동 시간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남녀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편들의 평균 가사 노동 참여율과 육아 참여율은 각각 11.9%와 21.8%이었다. 이는 한국 아내들의 평균 유급 노동 참여율(30.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2004 년 한국 통계청 생활 건강 조사 자료에서 밝힌

결과(은기수, 2009)와 동일하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남성들에 비하여 결혼한 여성들이 더 긴 시간 동안 노동(유급과 무급 노동 등 포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시간 제약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유급 노동 시간이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회귀 분석에서 나타난 계수들을 보면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참여는 남편 본인의 유급 노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아내의 유급 노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이는 앞서 설정된 가설과 일치한다.

상대적 자원 관점에서는 각 자원 요소들이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쳤다. 첫째, 부부간의 교육수준 차이는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는 1999년, 2004년, 그리고 2009년 한국 생활 조사 데이터에서 발견한 결과와 일치하며 앞서 교육 수준 차이 요인에 관한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둘째, 부부간의 소득 수준 차이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는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나, 육아 활동 참여에는 일부의 경우에서만(남편의 소득 수준이 아내의 소득 수준보다 높은 경우) 영향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직장 지위 차이 요인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지위가 더 높은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남편의 육아 참여와 부부의 직장 지위 차이 요인 사이에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회귀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가 대체적으로 상대적 자원 이론과 일치하며, 본 연구에서 상대적 자원 요인들에 대해 설정한 가설들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 이데올로기 관점에서는 부부의 성 역할 태도가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와 육아 활동 참여에 복잡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부분에서는 남편의 진보적인 태도가 그의 가사노동 참여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검증했다. 또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남편들의 경우에는 아내의 진보적인 태도가 그의 남편으로 하여금 더 많은 가사노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에 부합한다.

부부의 성 역할 태도가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에는 직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들의 육아 활동 참여에는 매우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남편들의 태도는 가사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보적일 수록 남편의 육아 참여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아내의 성 역할 태도가 남편의 육아 활동에 미친 영향은 매우 흥미롭게도

예상과 달랐다.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남편들 사이에서 아내의 태도가 진보적일 수록 그들의 육아 참여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진보적인 태도가 남편으로 하여금 육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든다는 가설과 완전히 상반된 결과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다. 그리고 2004 년 한국 생활 건강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 연구(은기수 , 2009)와 비교하면 2014 년 응답자 사이에 성 이데올로기 요인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졌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아내의 진보적인 태도가 전통적인 남편의 육아 활동 참여율을 낮게 만드는 현상은 2014 년에만 나타난 예외적 경우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보편적인 추세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질문들을 야기시키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2014 년이후의 변화나 남편들의 행동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의 질문들은 본 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부부의 성 이데올로기 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 건강 조사 데이터에 대한 양적인 분석 연구가 필요하며, 아내의 성 역할 태도에 대한 남편들의 생각을 연구한 질적인 연구 또한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첫째, 시간 제약 요인들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한국 남편들의 가사 노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는 예전의 연구와 달리 성 이데올로기 요인들의 영향력을 발견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더 깊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동일한 요인들의 영향이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과 육아 활동 참여라는 두 영역에 각각 어떻게 다른 양상을 만들어 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두 노동 영역의 본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6. 참고문헌

I. Primary Resources

Time use data in 2014 (Statistics Korea: www.kostat.go.kr)

II. English Literature

1. Pedersen, F. A., Rubinstein, J. L., & Yarrow, L. J. (1979). Infant development in father-absent families.
2. Pedersen, F. A., Anderson, B. J., & Kain, R. L. (1980). Parent-infant and husband wife interactions observed at age five months
3.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 (1984) Toddler development in the family: Impact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4. Yogman, M. W. Kindlon, D., & Earls, F. (1995). Father involvement and cognitive/behavioral outcomes of preterm infants.
5. Bing, E. (1963). The effect of child rearing practices on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bilities.

6. Goldstein, H. S. (1982). Fathers absence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12-17 year olds.
7. Radin, N. (1982). Primary caregiving and role sharing fathers.
8. Alfaro, E. C., Umana-Taylor, A J., & Bamaca, M. Y. (2006). The influence of academic support on Latino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9. Kotelchuck, M. (1976). The infant's relationship to the father: experimental evidence.
10. Parke, R., & Swain, D. (1975, April). Infant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as elicitors of maternal and paternal responsiveness in the newborn period.
11. Mischel, W., Shoda, Y. ,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12. Biller, H. B. (1993). Fathers and families: Paternal factors in child development.
13. Amato, P. R. (1987). Children in Australian families: The growth of competence.
14. Forehand, R., & Nousiainen, S. (1993).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Critical dimensions in adolescent functioning.

15. Gottfried, A. E., Gottfried, A. W., & Bathurst, K. (1988). Maternal employment, family environ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fancy through the school years.
16. Krampe, E. M., & Fairweather, P. D. (1993). Father presence and family formations: A theoretical Reformulation.
17. Parke, R. D. (1996). Fatherhood.
18. Snarey, J. (1993).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A four-decade study.
19. Stolz, H. E., Barber, B. K., & Olsen, J. A. (2005). Toward disentangling fathering and mothering: An assessment of relative importance.
20. Hooven, C., Gottman, J. M., & Katz, L. F. (1995). Parental meta-emotion structure predicts family and child outcomes.
21. Lieberman, M., Doyle, A., & Markiewicz, D. (1999). Developmental patterns in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peer relations.
22. Lindsey, E. W., Moffett, D., Clawson, M., & Mize, J. (1994, April). Father-child play and children's competence.

23.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24. Rutherford, E. E., & Mussen P.H. (1968). Generosity in Nursery School Boys.
25. Youngblade, L. M., & Belsky, J. (1992). Parent-child antecedents of 5-year-olds close friendships: A longitudinal analysis.
26. Shelley (1985). Explaining
27. Aldous, J., Mulligan, G. M., & Bjarnason, T. (1998). Fathering over Time: What Makes the Differ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4), 809. doi:10.2307/353626
28.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 doi:10.2307/2675569
29.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The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doi:10.1111/j.1533-8525.1985.tb00217.x
30. Deutsch, F. M., Lussier, J. B., & Servis, L. J. (1993). Husbands at home: Predictor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hous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154-1166.

doi:10.1037//0022-3514.65.6.1154

31. Rindfuss, R. R., Guilkey, D. K., Morgan, S. P., & Kravdal, Ø. (2010). Child-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in Norwa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4), 725-748.
doi:10.1111/j.1728-4457.2010.00355.x
32. Starrels, M. E. (1994). Husbands involvement in female gender-typed household chores. *Sex Roles*, 31(7-8), 473-491. doi:10.1007/bf01544202
33. Yoon, S. (2017). The influence of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families on women's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6, 227-254. doi:10.4054/demres.2017.36.7

III. Korean Literature

1.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2009.12, 145-171
2.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2008.9, 177-210

3.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 2007.4, 147-174
4. 조미라, 윤수경 (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 -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44, 2014. 6, pp. 5-30
5. 이창순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4; 40(2); 29-54
6.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 <http://kostat.go.kr>
7. 2016 통계로 본 노동동향. <http://kostat.go.kr>